

《濟衆新編》藥性歌의 書誌的 高찰

이정화,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Bibliographic Study of *Jejungsinpyeon Yakseongga*

Jeong-Hwa Lee, Sang-Woo Ahn*

Center for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 Korea Institute Oriental Medicine

ABSTRACT

Objectives : This paper intends to shed light on the value of *Jejungsinpyeon*, which is known to have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country's medicine in the later period *Joseon* Period, and its position in the *Joseon* history of medicine. To such an end, this paper focuses on how *Yakseongga* was developed and transformed in the later period *Joseon* Period through a bibliographical study of it.

Methods : ① To mak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303 lines, which the author said he quoted from *Wan bing hui chun* and *Susebowon*, with *Yakseongga* of *Jejungsinpyeon* to see association between them based on *Yakseongga* contained in *Jejungsinpyeon* ② To make a table concerning the names of the books, their authors, when they were published, how many kinds there are, their formats based on a survey of literature containing *Yakseongga* published after *Jejungsinpyeon*. ③ To see influences made by *Jejungsinpyeon* on books of medicine in the later *Joseon* Period.

Results : It was found that a total of 303 lines had been quoted from *Wan bing hui chun* and *Susebowon* and that 83 lines had been newly inserted by the author.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Yakseongga* of *Jejungsinpyeon*, Of the 303 lines, 297 were quoted from *Susebowon*, and only six from *Wan bing hui chun*. This means that the author of *Jejungsinpyeon* chiefly used *Susebowon* as the source of *Yakseongga* quoted therein. 275 lines, or 76%, of a total of 386 lines of *Yakseongga* of *Jejungsinpyeon*, have their Korean names marked. Medicinal herbs marked as Chinese herbs number 83 out of 386. Among the 83 herbs named, one belongs to the part newly inserted by the author, while the remaining 82 are quoted from *Yakseongga*.

Conclusions : It shows the author's intention to make what is contained in *Yakseongga* localized knowledge and used by the people easily, although *Yakseongga* was compiled based on quotations from Chinese literature.

Key words : *Jejungsinpyeon*, *Yakseongga*

서론

《濟衆新編》은 당시 최고의 의학서적으로 평가받고 있던 《東醫寶鑑》의 단점을 보완하고 널리 백성에게 두루 의학지식을 전파하고자 편찬되었으며, 正祖 자신이 의

학에 대한 높은 식견과 노력으로 편찬에 깊이 관여하여 일일이 지시하고 손질함으로써 正祖의 저작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의서이다.

《濟衆新編》은 이처럼 正祖의 명에 의해 內醫院 首醫였던 康命吉이 편찬한 총 8권 5책의 木版本으로 1799년

*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 Tel : 042-868-9442 · E-mail : answer@kiom.re.kr
· 접수 : 2009년 8월 28일 · 수정 : 2009년 9월 18일 · 채택 : 2009년 9월 23일

鑄字所에 의해 간행배포 되었다. 이후 조선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중국에도 전해져 청나라 시기인 1817(嘉慶, 22)년과 1851(咸豐 1)년 중국 판본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¹⁾.

아울러 《濟衆新編》은 간행 이후 조선에서 간행되는 많은 의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醫宗損益》, 《醫鑑重磨》, 《方藥合編》, 《東醫壽世保元》 등이 이 책의 영향을 받았으며, 《醫宗損益》의 저자 黃度淵은 《醫宗損益》을 쓰는 데 이 책이 모범이 되었다고 직접 밝히고 있어 그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²⁾.

또한 《濟衆新編》은 우리나라 최초의 약성가 수록문헌이기도 하다. 藥性歌의 국어사전 정의를 보면, 藥材의 性質과 效能을 읊은 漢詩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藥性歌란 한의학에서 쓰이는 개별 藥材의 性味와 效能을 4言 4句 또는 7言 2句 등의 한문가사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誦讀하기 쉽도록 한 것을 일컫는다. 藥性歌는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본초지식의 최고 결정판이라 할 수 있으며, 《濟衆新編》의 출현 이후 조선에서 간행되는 많은 의서에 계승 발전되어 수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濟衆新編》으로부터 시작된 藥性歌는 이 책이 간행된 지 2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의사가 임상에서 진료 행위를 할 때 처방을 하고 약을 제조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교육용으로도 한의과대학과 한약학과 학생들이 本草의 藥性과 主治, 效能 등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암기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濟衆新編》은 정조의 愛民思想과 자주적인 의학사상이 표출된 그 가치가 결코 작지 않은 문헌으로, 《東醫寶鑑》의 다소 번잡한 단점을 극복하고 실용적으로 백성에게 이용되기를 열망하며 새로운 내용 및 형식과 함께 藥性歌를 수록함으로써 대중적인 의학문헌으로 사용되기 위해 간행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용되고 출판되고 있는 문헌이다. 그러나 이 문헌을 주제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藥性歌에 대한 연구 또한 미진하다.

이에 본인은 《濟衆新編》 藥性歌의 서지적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藥性歌의 계통을 정리하고 그 수용과 변형 과정을 밝힘으로써, 조선후기 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濟衆新編》의 가치와 조선의학사에서의 위치를 밝히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濟衆新編》 권 8에 수록된 藥性歌이며, 《濟衆新編》의 藥性歌가 어떤 문헌의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濟衆新編》 간행 이후 조선에서 간행되는 藥性歌 수록문헌을 수집 조사하여 그 연과성과 계통을 밝히고자한다. 관련 문헌의 분석 시 藥性歌가 수록된 부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약성을 기술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운율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藥性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의학 분야에 박성식의 학술지 수록 논문 1편, 국문학분야에 인권환의

학술지 수록 논문 1편, 음악학 분야의 학위논문이 1편이 있을 뿐이다.

박성식³⁾의 논문은 현재 《東武遺稿》에 수록되어 전하는 藥性歌에 대한 고찰로 사상인에 적용되는 약물의 藥性(藥性歌)을 전하고 있는 문헌 7종(《四象診療醫典》, 북한 保健省에서 발행한 《東武遺稿》, 《家庭必備 四象要覽》, 《四象醫學原論》, 《東醫四象大典》, 《朝醫學》, 《東武四象要訣》)에 대하여 사상약성 설명법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東武遺稿》 藥性歌가 과연 동무의 저작인지에 대한 문제, 저작의 시기에 대한 문제, 서로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진위 문제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본격적인 藥性歌 관련 논문이라 보기 어렵다. 인권환⁴⁾의 논문은 국문학 분야의 연구로 본초로서의 약성이 아니라 가결로서의 판소리 사설을 연구함으로써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와는 구별된다 하겠다. 박성희⁵⁾의 논문도 역시 판소리 수궁가에서 藥性歌의 주입새를 연구함으로써 이 또한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藥性歌와는 차이가 있다 하겠다.

그 외 한의학 분야에서 의사학 또는 원전학 분야의 논문 중에 약성가가 언급된 논문으로는 《濟衆新編》을 연구한 지창영⁶⁾과 김종열⁷⁾의 연구가 있으나, 이 또한 《濟衆新編》을 의과학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면서 편제와 체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濟衆新編》 권 8의 약성가가 수록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濟衆新編》 藥性歌에 대한 본격적인 서지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인은 《濟衆新編》 藥性歌에 대한 서지적 고찰을 시행함으로써 그 문헌의 가치와 성과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濟衆新編》 권 8에 수록된 藥性歌를 바탕으로, 저자 강명길이 밝힌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인용 가결 303수를 《濟衆新編》 藥性歌와 비교 분석하여 그 연관성을 밝힌다. 둘째, 《濟衆新編》 이후 간행된 藥性歌 수록 문헌을 조사하여, 서명, 저자, 간행시기, 종수, 형식 등을 표로 정리하고 그 계통을 밝힌다. 셋째, 《濟衆新編》 간행 이후 조선후기 여러 의서의 藥性歌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본 론

1. 《濟衆新編》 藥性歌 고찰

1) 《濟衆新編》 藥性歌의 의미

《濟衆新編》은 1799년(正祖 23) 조선의 의학자 康命吉에 의하여 저술되었다. 전 8권 5책으로 된 《濟衆新編》에는 한의학의 기본이론들을 비롯하여 내과 및 외과·소아·부인과 등 일련의 질환과 각종 해독법 및 구급법이 서술되어있다. 내용은 卷 1~7에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질병 증세와 약방문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卷 7 말미에는 노쇠를 방지하고 장수하게 하기 위한 養老 향

목이 서술되어 있으며, 卷 8에는 각각의 약물에 대한 效能과 禁忌를 정리한 4言 4句의 藥性歌가 실려 있다.

《濟衆新編》은 우선 체계가 정연하고 내용이 간결함으로써 책 이름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다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 특히 卷 8에 수록된 藥性歌는 당시의 대표 의서였던 《東醫寶鑑》에도 없는 내용으로 실용성과 간편성을 추구하며 기획된 《濟衆新編》 간행의 목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濟衆新編》은 藥性歌가 실린 최초의 관찬의서였으며 이후 편찬되는 많은 의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藥性歌란 실제 임상에서 적용되던 많은 처방을 근거로 약물에 대한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쉽게 암기하여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결의 형태로 만들어 정리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藥性歌란, 한의학에서 쓰이는 개별 藥材의 性味와 效能을 4언 4구 또는 7언 2구 등의 한문가사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誦讀하기 쉽도록 한 것을 일컫는다. 이는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본초지식의 결정체로 실용성과 대중성을 강조한 가결(한시)이며, 藥性歌의 본래 취지는 약물에 대한 지식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가결형식은 한의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경락 경혈의 유주를 가결로 만들어 기억하기 용이하게 한 경혈가와 탕제의 약물구성을 가결로 만든 탕두가결 등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藥性歌가 가장 대중적이고 실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濟衆新編》의 藥性歌는 중국에서 간행된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을 수용하여 처음 등장하게 된다. 《萬病回春》은 명나라 龔延賢에 의해 萬曆 50년(1587) 편찬된 의서로 卷 1에 藥性歌가 있으며, 240종의 약제가 4언 4구 16자씩 가결형식을 띠고 수록되어 있다. 이 藥性歌는 약제별로 性味, 效能을 서술하고, 작은 글씨로 主治, 副作用, 禁忌, 異名 등의 주석이 달려 있다.

《壽世保元》은 명나라 龔延賢에 의해 1600년대 초 편찬된 의서로 卷 1 本草藥性歌括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400종의 약제가 4언 4구 16자씩 가결형식을 띠고 수록되어 있으며, 약제별로 性味, 效能, 主治, 副作用, 禁忌, 異名 등을 서술하고 있다. 《壽世保元》 藥性歌는 《萬病回春》의 저자 龔延賢의 저작으로 먼저 간행된 《萬病回春》과 수록 약제도 비슷하고 순서도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몇몇 글자가 다르며, 주석이 좀 적고 약제수가 《萬病回春》보다 160종 늘어나 400종의 약제가 수록되어 있다.

2) 《濟衆新編》 藥性歌 분석

《濟衆新編》에 수록된 藥性歌는 저자 康命吉이 卷 8 초입에서 밝히고 있듯이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에서 303수를 빌려오고, 새로 83수를 신증하여 총 386수를 수록하였다. 이를 근거로 확인한 결과, 《濟衆新編》의 약성가는 주로 《壽世保元》의 藥性歌를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문헌에서 차용한 303수의 약제 중 《壽世保元》에

없는 약제는 총 6종으로 川芎, 芒硝, 蓮肉, 杜仲, 胡巴, 虎骨이며 그의 296종의 약제는 《壽世保元》에 수록된 약제였다. 그 수록 순서 또한 초반에는 《壽世保元》의 순서와 거의 비슷하나 중반 이후 순서가 바뀌어 수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濟衆新編》 藥性歌 중 《萬病回春》에서 인용한 약제를 보면, 人蔘~生薑까지 235종의 약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인용 약제 303종 중 68종을 제외한 235종의 약제가 《萬病回春》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235종의 약제는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에 공통 수록된 약제임을 알 수 있는데, 이중 2종 滑石, 檳榔만이 《萬病回春》에는 있으나 《壽世保元》에 없는 약제이다.

이는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저자가 龔延賢으로 같고, 《萬病回春》은 1587년에 간행되었고 《壽世保元》은 1600년대 초에 간행되었으므로 《수세보원》은 《萬病回春》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실제 《壽世保元》과 《萬病回春》에 동시에 수록되어 있는 동일한 약제의 경우 그 표현이 거의 같으며 순서도 많이 일치하였다. 《萬病回春》 240수에 160수를 증보하여 만들어진 《壽世保元》은 400수의 藥性歌가 수록되어 있으며 증보된 160수 중 《濟衆新編》 약성가에 인용된 것은 65수로 《壽世保元》에 증보된 약제의 40.6%가 《濟衆新編》에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壽世保元》에만 있고 《만병회춘》에는 나타나지 않은 약제는 총 68종으로 五倍, 瞿麥, 華澄 ... 鴨肉, 雀卵 등이다.

《濟衆新編》에서 신증한 약물은 주로 음식물과 관련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신증한 83수의 약제 중에는 荔枝 한 종만이 당약으로 나타나 있을 뿐 모두가 향약이다. 이는 여말선초에 대두된 향약에 대한 논의와 정조와 저자 강명길의 《濟衆新編》 간행의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이처럼 신증한 藥性歌는 조선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약으로 새로운 藥性歌를 추가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보아 활용하게 하였고, 약제에도 한글명을 표기하고 약제별로 당약인지 향약인지 표기하였다.

또한, 《濟衆新編》 藥性歌 총 386수 중 76%인 276종이 당약 향약 관계없이 한글명이 소주 되어 있어 백성들이 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한글명 표기가 가능한 경우 모두 향약명을 표기함으로써 그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애민사상을 엿볼 수 있으며, 향약 표기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濟衆新編》 藥性歌에 당약이라고 표기한 약제는 전체 386종 중 83종으로 그중 1종만이 신증한 약제에 속해 있고, 나머지 82종의 약제는 기존의 《壽世保元》과 《萬病回春》에 수록된 것이다. 《壽世保元》과 《萬病回春》의 藥性歌를 인용한 303수 중 당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글표기를 한 약제가 7종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흰계조/白芥子, 다목/蘇木, 누에죽어막르니/蠶蠶, 산트에비암/花蛇, 석곡골/石斛, 룡의뼈/龍骨, 멸앳불휘/葶藶이다. 또한 강명길이 신증한 약제 중 유일한 唐材인 荔枝의 경우도 '레지'라고 한글 표

기가 소주 되어있다. 이는 중국의 문헌을 인용하여 藥性歌를 수록하였지만 이를 수용하여 발전시키고자 했던 저자 康命吉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2. 《濟衆新編》 藥性歌의 영향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의학 문헌에 藥性歌가 본격적으로 수록되기 시작한 것은 《濟衆新編》 간행 이후이다. 1799년 관찬서인 《濟衆新編》 간행 시 처음으로 약성가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었으며, 83수를 기존의 藥性歌 형식에 맞추어 새롭게 신증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역을 저자 강명길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濟衆新編》 藥性歌 간행 이후 조선후기에 간행된 의서 중 藥性歌가 수록된 문헌을 살펴보면, 《醫宗損益附餘(1869)》, 《方藥合編(1884)》, 《東武遺稿(1890~1894)》, 《舟村新方(1930)》⁸⁾, 《醫鑑重磨(1922)》, 《入門醫鑑本草總括(19C말)》⁹⁾ 《若山好古腫方撮要(1800년대)》¹⁰⁾ 등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醫宗損益附餘》, 《方藥合編》, 《舟村新方》의 藥性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1) 《醫宗損益附餘》와 《濟衆新編》 藥性歌

《醫宗損益附餘》에 대해 살펴보면, 《醫宗損益》은 1868년(高宗 5) 黃度淵이 저술, 간행한 醫書이다. 12권 6책, 부록 1책의 목판본으로 1855년에 그가 저술한 《附方便覽》을 더욱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것이다. 《醫宗損益附餘》는 《醫宗損益》의 일부로 편집되었으나, 겉표지의 제목과 권수계가 따로 《醫宗損益附餘》라 명기되어 있어 독립된 책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는 本草에 대한 정보원으로 속칭 '藥性歌'라 불리고 있으며, 4인 4구 16자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부록인 《醫宗損益附餘》 藥性歌는 뒤에 《方藥合編》에 인용되어 그 빛을 보게 되었고, 또한 藥性의 끝에 약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여 그 당시의 약을 구명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醫宗損益》은 《濟衆新編》 간행 이후 69년 만에 간행된 책으로 《濟衆新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醫宗損益附餘》에 수록된 약성가를 《濟衆新編》 藥性歌와 비교하면, 전체 514수 중 《壽世保元》에서 360수를, 《濟衆新編》에서 81수를 인용하고, 73수를 신증하였다고 명기하였다. 이는 《濟衆新編》 藥性歌에서 신증된 83수 중 凡諸魚鮓, 凡諸魚膾 2수만을 제외하고 모두를 수용한 것으로 《濟衆新編》의 藥性歌가 《醫宗損益附餘》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方藥合編》과 《濟衆新編》 藥性歌

1884년 黃道淵(1808~1884)의 아들 黃泌秀가 黃道淵의 저서 《醫方活套》와 《醫宗損益》을 합본하여 새로운 체제로 엮은 것에 證脈要訣 등 10여 항을 증보하여 《方

藥合編》을 만들었다. 실제 임상 치료 시 꼭 필요한 사항들이 집산 되어 있어 실용의서로서 그 가치가 높으며 현재도 한의사들이 꼭 상비하는 책이다. 그 구성을 보면 책의 상단에 《損益本草》를 두어 총 514종의 약물을 식물성 약초에서 광물성 약물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배열하여 찾기가 쉽고 외우기 쉽게 藥性歌를 수록하였다. 7언 2구 14자로 구성하여 앞서 간행된 《濟衆新編》이나 《醫宗損益附餘》에 비해 더욱더 간결함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方藥合編》은 약성가를 가장 많이 유행시켰고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약초에 우리 말을 붙여 참고하기 편리하게 하였으며, 외국산 약재는 그 이름을 음각으로 표시하여 이를 구분하였다.

3) 《舟村新方》과 《濟衆新編》 藥性歌

《舟村新方》의 저자 申曼(1620~1669)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자는 曼倩 호는 舟村이며 시호는 孝義이다. 현재 전하고 있는 《舟村新方》은 1930년 옥천에서 발간된 연활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1책이 있다. 활자본과 필사본은 저자가 같다고 보기 힘들만큼 서로 다른 편제를 띠고, 목차나 내용에서도 공통된 곳이 아주 두드러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작인 《舟村新方》에 藥性歌를 첨가하여 《舟村新方》이라는 제목으로 후에 연활자본으로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藥性歌는 1930년 옥천에서 발간된 연활자본에만 수록되어있으며 《濟衆新編》의 약성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濟衆新編》의 藥性歌에 鴉片, 金桂, 石油 3종을 추가해 389수의 藥性歌가 수록되어있다. 이처럼 《濟衆新編》 藥性歌는 오래도록 의서에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藥性歌의 수용과 변천

《濟衆新編》에서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가결 303수를 수용하고 다시 83수를 증보하며 시작된 藥性歌는 조선 후기 실용주의와 편리성으로 인하여 널리 유행하게 되며 이는 후대 여러 의학문헌에 藥性歌를 수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濟衆新編》 출현 이후 조선에서 간행되는 의학문헌 중 약성가가 수록된 문헌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조선의 藥性歌는 중국에서 간행된 의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조선은 《濟衆新編》 약성가에 앞서 1575년 이전에 집필한 《醫學入門》을 통해서도 藥性歌의 편리성과 유용성을 접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조선 의학문헌에서의 직접인용은 《濟衆新編》에서 《壽世保元》과 《萬病回春》의 藥性歌를 수용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조선은 그 이전에 이미 가결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醫學入門》을 통해 약성가를 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醫學入門》은 전체가 가결형식을 띠고 있으며, 《醫學入門》 內集 卷 2, 3의 본초총괄부분에 약성가가 수록되어있기 때문이다. 《醫學入門》은 조선에서 간

Table 1. 《濟衆新編》과 조선 후기 의서에 나타난 藥性歌 특징

書名	形式	刊行時期	種數	特 徵	著者
《濟衆新編》	4언 4구 (16자)	1799	386	-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가결 303수를 초하고 83수를 증보함. - 신증한 83수 중 荔枝만이 '唐'이라 표기된 수입약제 - 신증한 약성가는 주로 음식과 관련 있음 - 386수 중 당제로 언급한 약물은 83종 - 향약명 표기, 백성들이나 의사들의 쉽게 이해하도록 함. - 한글표기 275종 - 우리나라 관찬 의서 중 최초로 약성가 수록	康命吉
《醫宗損益附餘》	4언 4구 (16자)	1869	514	- 《壽世保元》 361수, 《濟衆新編》 80수 인용, 신증 73수	黃道淵
《方藥合編》	7언 2구 (14자)	1884	514	- 상단에 손익본초를 두고 총 514종 수록 - 식물성 약초에서 광물성 약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배열 찾기 쉽게 함 - 향약명을 붙여 알기 쉽게 하였으며, 외국산 약제는 그 이름을 음각표시	黃道淵 著 黃泌秀 編輯
《舟村新方》	4언 4구 (16자)	1930	389	- 《濟衆新編》 약성가를 그대로 옮겨 기재하고 3종(鴉片, 金桂, 石油)의 약제만을 추가함	申曼
《東武遺稿》	4언 4구 (16자)	1890~1894	308	-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에서 각각 28종 약물을 18종의 약성가로 설명	李濟馬
《醫鑑重磨》	4언 4구 (16자)	1922	252	- 補藥, 和藥, 熱藥, 寒藥, 散藥, 收藥, 通藥, 瀉藥, 食補로 분류하고 약성가 수록	李奎峻

Table 2. 조선 후기 약성가의 수용 및 변형

書名 - 收錄部分	刊行時期	著者	種數	藥性形式	備考
《醫學入門》-卷 2, 3 本草總括	1575	李梴	749	7언 4구(28자) 중국 의서	
《萬病回春》-卷 1 藥性歌	1587	龔延賢	240	4언 4구(16자) 중국 의서	
《壽世保元》-卷 1 本草藥性歌括	1600년대 초	龔延賢	400	4언 4구(16자) 중국 의서	
《濟衆新編》-卷 8 藥性歌	1799	康命吉	386	4언 4구(16자) 《壽世保元》, 《萬病回春》의 303수+신증 86수	
《醫宗損益附餘》	1869	黃道淵	514	4언 4구(16자) 《壽世保元》 361, 《濟衆新編》 80+신증 73수	
《方藥合編》	1884	黃泌秀	514	7언 2구(14자) 증보 《萬病回春》 인용	
《東武遺稿》	1890~1894	李濟馬	308	4언 4구(16자)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으로 설명	
《舟村新方》	1930	申曼	389	4언 4구(16자) 《濟衆新編》에 약제 3종 추가	
《若山好古腫方撮要》	1800년대	姜彝五	323	4언 4구(16자) 《濟衆新編》전수. 중기치료법임(1권1책)	
《入門醫鑑本草總括》	19C 말	朴氏		4언 4구(16자) 7언 4구(28자)	《醫學入門》, 《古今醫鑑》 2책 묶어 간행
《醫鑑重磨》	1922	李奎峻	252	4언 4구(16자) 9개로 분류하여 수록	

행되는 많은 의서에 인용되고 있으며, 749종의 약제가 수록되어 있고 7언 4구 28자로 구성되어있다. 조선 의서의 藥性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藥性歌 수록 의학문헌 3종과 조선후기에 간행된 의학문헌 중 藥性歌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을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결론

《濟衆新編》은 17세기 중엽 이후 《東醫寶鑑》을 간편하게 만들어 사용하고자 하였던 경험방들의 종합판이면서 18세기 후반의 실정에 맞추어 편찬된 의서였다¹¹⁾. 《東醫寶鑑》의 단점을 극복하고 실용적으로 백성에게 이용되기를 열망하며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藥性歌를 수록함으로써 대중적인 의학문헌으로 사용되기 위해 간행되었다. 《濟衆新編》은 正祖의 세자 시절에 기획되어

수십 년 만에 완성되었다. 편찬과정에서 正祖는 저자 康命吉에게 내용을 검토하고 삭제하거나 보충할 것을 지시하고 재차 정리를 명할 정도로 《濟衆新編》 편찬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正祖의 의약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의서이다.

또한 《濟衆新編》은 관찬 의서 중 처음으로 藥性歌가 수록된 문헌이다. 藥性歌란 실제 임상에서 적용되던 많은 처방을 중심으로 藥物에 대한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쉽게 암기하여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부형식을 빌어서 씬으로써 실용성·대중성·편의성·간결성의 장점을 가진 본초의 지식의 결정체이다.

《濟衆新編》 藥性歌는 당대 명나라 의학을 수용한 신 지식이라 할 수 있으며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으로부터 입수된 藥性歌에 향약이 추가되어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하였는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 康命吉이 《濟衆新編》 藥性歌에서 밝히고

있듯이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藥性歌 303수를 인용하고 83수를 신증하였다는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濟衆新編》 藥性歌 분석결과 《壽世保元》의 藥性歌를 가장 많이 인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03수의 인용약재 중 6종을 제외한 297종의 약재가 《壽世保元》의 藥性歌와 일치하였으며, 《萬病回春》의 藥性歌와 같은 약재는 235종이었다. 또한 《萬病回春》에만 수록되어 있고 《壽世保元》에 없는 약재로는 滑石, (唐)檳榔 2종에 불과하였다.

셋째, 《濟衆新編》의 藥性歌는 《壽世保元》과 《萬病回春》의 藥性歌를 인용하면서도 《濟衆新編》 간행의 목적인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보게 하기 위하여 약재에 한글명을 표기하고 있다. 또한 약재별로 당약인지 향약인지를 표기하였고, 한글표기가 가능한 경우 당약이든 향약이든 구분없이 한글명을 이두로 표기하고 있다. 《濟衆新編》 藥性歌 총 386수 중 76%인 275종이 한글명이 소주되어 있으며, 당약이라고 표기한 약재는 전체 386종 중 83약재로 1종은 신증한 약재에 있고 나머지 82종의 약재는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에서 인용한 약재이다. 신증한 약재 중 당약은 荔枝뿐이며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약으로 새로운 藥性歌를 추가하였다. 또한 唐材라 하더라도 한글표기가 가능한 경우 이용의 편의를 위해 한글을 표기를 하였으며 이를 살펴보면, 흰계조/白芥子, 다목/蘇木, 누에죽어머리니/僵蠶, 산뱀애비암/花蛇, 석곡풀/石斛, 룡의뼈/龍骨, 멸앓불휘/葷蕪 7가지 약재와 康命吉이 신증한 약재 중 유일한 唐材인 레지/荔枝의 경우도 한글표기가 소주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의학을 받아들여 자기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행적과 중국의 문헌을 인용하면서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당재의 경우에는 백성들의 쉽게 읽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향약명을 표기함으로써 애민사상과 그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濟衆新編》의 영향으로 《醫宗損益附餘》, 《方藥合編》, 《東武遺稿》, 《舟村新方》, 《醫鑑重磨》, 《入門醫鑑本草總括》, 《若山好古腫方撮要》 등 藥性歌가 수록된 의학문헌이 수차례 간행되었으며, 이들 문헌은 직간접적으로 《濟衆新編》 藥性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황도연의 사후 저작인 《方藥合編》에 다시 인용됨으로써 조선후기 藥性歌가 절정을 이루

게 되며, 《方藥合編》 藥性歌는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는 藥性歌가 되고 있다. 이처럼 《濟衆新編》 藥性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方藥合編》 藥性歌의 기틀이 되고 있고 조선후기 藥性歌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있고 있어 그 성과가 결코 작지 않다 하겠다.

참고문헌

1. 안상우, 김남일, 차용석, 오준호, 권오민, 박상영, 이정화.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 옛 의학책. 증보판. 대전 :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 70-7.
2. 안상우. 저승까지 侍從한 首醫 康命吉-《濟衆新編》. 민족의학-고의서산책 18. 1999. 12. 6.
3. 박성식.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 의학회지. 2001 ; 13(2) : 8-27.
4. 인권환. 판소리 사실 '약성가'고찰-수궁가를 중심으로. 문학한글. 1987 ; 1 : 37-66.
5. 박성희. 수궁가 중 약성가의 불임새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6. 지창영. 《濟衆新編》을 통해 살펴본 강명길의 의학사상.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과 지창영. 《濟衆新編》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논문 참고.
7. 김종열. 《濟衆新編》의 연구. 대한원전지사학회지. 1992 ; 6 : 70-88.
8. 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의학국역총서 6. 舟村新方. 대전 :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참고. 《舟村新方》의 저자는 申旻(1620~1669)으로 연환자본과 필사본이 전하며 이 책들은 저자가 같다고 보기 힘들만큼 서로 다른 편제와 목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살펴볼 책은 1930년 옥천에서 발간된 《舟村新方》만을 대상으로 한다.
9. 한의고전명저총서(URL:http://jisik.kiom.re.kr) 참고. 《入門醫鑑本草總括》은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 나오는 藥性歌를 분야별로 나누어 초록한 것이다.
10. 한의고전명저총서(URL:http://jisik.kiom.re.kr) 참고. 《若山好古腫方撮要》는 조선후기 저술된 중기치료 전문의서.
11. 김호. 정조대의 의료정책과 《濟衆新編》의 간행. 한국사학회. 1999 ; 12 : 117-45.